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탄소중립 목표”
코오롱글로벌, 충청·충주시와 업무협약

김영현 충북지사,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조길형 충주시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벌은 “충청북도, 충주시와 함께 6일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코오롱글로벌과 충청북도, 충주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청정수소 생산·활용 사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코오롱글로벌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블루수소 사업을 시작으로 수전해 기술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RE100 산업단지까지 조성하는 한편 내륙 중심의 지리적 이점과 충주댐, 태양광 발전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해 충주시를 중부권 청정수소 생산·공급을 위한 ‘수소생산거점’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코오롱글로벌은 “2000억 원이 투자되는 블루수소 생산·활용 사업 기준, 설비 운영기간 동안 2200여 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해외에서 더 인기 ‘반딧불 열스멜론’

김복남 대표 “다양한 지원책 필요해”



반딧불영농조합법인(대표 김복남·사진)이 생산하는 ‘반딧불 열스멜론’이 철저한 품질관리와 높은 상품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120곳 회원 농가를 보유한 반딧불영농조합법인은 16만 여 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750톤의 반딧불 열스멜론을 생산하고 있다. 반딧불영농조합법인 상품은 네트가 굵고 뚜렷한 데다 과실이 큰 게 특징으로 맛과 식감, 향 등 품미가 뛰어나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반딧불영농조합법인은 2018년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아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공동집하와 생산, 선별 그리고 포장과 출하 및 저장 등 전 과정을 첨단시설로 구축하고 있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표준규격 준수는 다른 영농조합의 표본이 될 정도다.

김복남 대표는 “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에 향긋한 향과 먹음직한 품미까지 더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며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선호도 1위를 달성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해외 시장 소비자 만족도도 높다”고 덧붙인 그는 “하지만 외국인 인력 수급이 큰 문제이고,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해줘야 농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출 시장확대 및 개척을 위해 무이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자생한방병원, 축구스타 이강인 의료후원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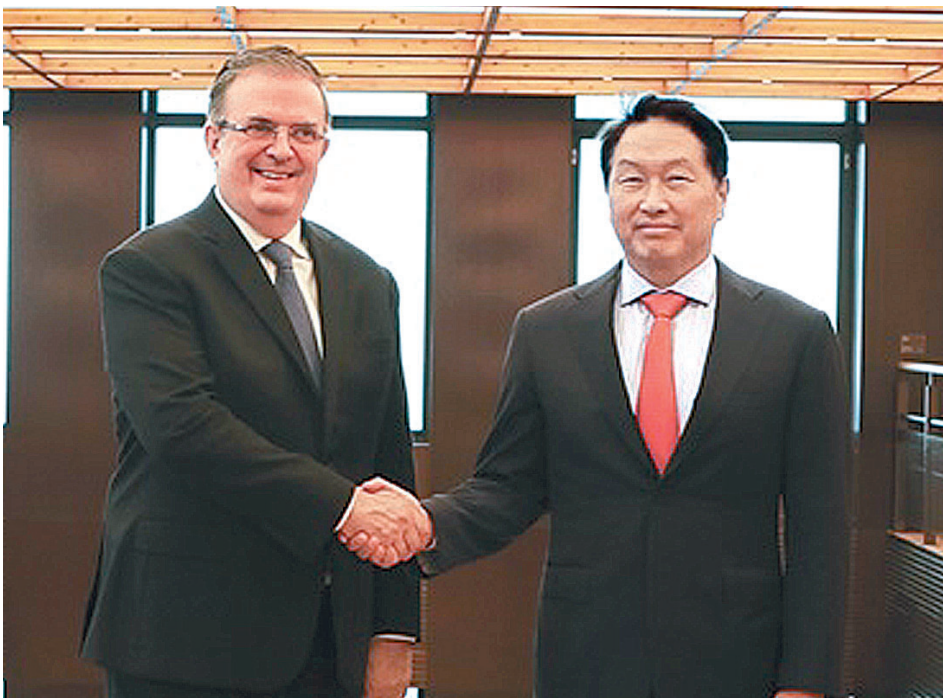


자생의료재단 박병도 이사장, 이강인 선수,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왼쪽부터).

자생한방병원은 6일 스페인 마요르카 팀에서 뛰고 있는 축구스타 이강인 선수와 건강검진도 실시했다. 이진호 병원장이 직접 몸 상태를 진단하고 추나요법, 침치료 등 한의 치료를 실시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경기와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을 치료하는 역할을 맡는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발 벗고 나선 재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 오른쪽)이 6일 SK서린빌딩에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 출장 중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CGF에 참석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활동을 펼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사진 오른쪽).



사진제공 | SK그룹·롯데그룹

“CEO가 직접 유치 홍보…글로벌 역량 총동원”

61조 원에 달하는 경제 파급 효과 삼성·SK 등 11개사 유치 적극 지원 최태원, 멕시코 장관에 지지 호소 삼성, 계열사 경영진 통해 득표 활동 롯데도 사장단회의 열어 방안 논의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불린다. 한 국가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천문학적인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경제계가 61조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월31일 부산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식’(이하 부산엑스포 민간위)을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의 참여 기업은 현재까지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 11개사다.

참석 기업인들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 하기로 다짐했다. 세계 10위 수출강국의 글로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계획으로, 기업별

중점 담당국가를 정해 교섭활동을 추진한다. 아프리카, 개도국을 대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고, 정부와 함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개최한다. 기업별 유통망, 스포츠 구단, 홍보관 등을 통해 국내외 홍보에 나선다.

2030 엑스포 유치경쟁은 부산, 리아드(사우디), 로마(이탈리아) 3파전 양상이다. 내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70개 국가의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5대 그룹, 부산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부산엑스포 유치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6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을 만나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원팀이 돼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2030 부산엑스포’의 주제와 의제가 멕시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엑스포 유치 민간위원장 등 3개의 모자를 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기후위기 등 세계가 맞닥뜨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부산엑스포를 기획 중이며 엑스포를 계기로 양국이 장기간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지 선정까지 1년의 시간이 남

았는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삼성은 계열사 경영진을 총동원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득표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들은 5~6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2022 한국-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정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은 글로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정부와 유치위원회를 총력 지원하겠다”며 “삼성이 갖고 있는 6G, 로봇, 메타버스, AR/VR 등 미래 첨단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6일 중남미 주요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을 현대차 브랜드 체험관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으로 초청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부산의 경쟁력을 설명하고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안드레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장관, 호세 앙헬 로페즈 과테말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에콰도르,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

10여 개국 정부 고위인사와 각국 대사 등 23명이 참석했다.

공영은 현대차 사장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산이아말로 2030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원 활동에 나선다. 부산엑스포 태스크포스는 CEO 조주완 사장이 리더를 맡는다. LG전자의 해외지역대표, 해외법인 관리담당, 글로벌마케팅센터, 한국영업본부, 홍보·대외협력센터 조직으로 구성됐다.

약 140개 해외법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와 홍보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롯데그룹은 14일 부산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하반기 사장단회의(VCM)를 연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발 벗고 나선 신동빈 회장의 의지가 담겼다. 신 회장은 지난달 유럽 출장 중 아일랜드에서 열린 국제 소비재기업 협의체 ‘소비재포럼’에서 직접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롯데는 이번 회의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계열사들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 “한국 고객들이 사랑하는 차를 만들겠다”

“투자·인력충원에 새로운 도전할 것”
지리자동차와 파트너십 “큰 기회”
르노 하이브리드차, 기술력 우월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7일 경기도 용인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르노코리아

“한국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차를 만들겠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7일 경기도 용인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열린 자동차전문기자협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르노코리아 자동차 뒤에는 3개의 빅 플레이어(르노그룹, 닛산, 지리자동차)가 있다”며 “르노코리아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현대차·기아의 대안이자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엔지니어 출신인 드블레즈 사장의 표정과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드블레즈 사장은 르노 남미시장 차량 개발 총괄 엔지니어, 준중형·중형 세그먼트 신차 개발 프로그램 디렉터 등을 거쳐 르노

코리아자동차 사장을 맡았다. 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신차 개발 경력과 프랑스, 브라질, 중국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 경험을 지닌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드블레즈 사장은 “르노코리아는 품질 면에서 결코 업계 3, 4위 업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젊고 다문화에 익숙하면서 현대적인 사고를 하는 인력들을 충원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리자동차그룹이 지난 1월 지분 34.02%를 인수해 르노그룹에 이어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드블레즈 사장은 이와 같은 파트너십에 대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탁월했기 때문”이라며 “탁월한 플랫폼(CMA), 전동화 아키텍처, 파워트레인 등이기 때문에 이번 파트너십이 돌파구이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했다. 드블레즈 사장은 “르노코리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르노그룹이 하고 책임도 지게 된다”며 “나는 르노에서 왔고, 경영권은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르노코리아 자동차에 최선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자

동차와의 파트너십은 어디까지나 기술 협약과 재무적 파트너십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드블레즈 사장은 “더 많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한 뒤 전기차로 넘어갈 것이며, 무엇보다 딜러와 고객 서비스, 디지털과 커넥티드 서비스에 있어서 업계 최고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XM3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뒤, 2026년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드블레즈 사장은 “르노그룹은 2008년부터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관련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며 “르노코리아의 하이브리드차를 타보면 도심 운전할 때 약 75%의 구간에서 마치 전기차를 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경쟁사의 주행 질감보다 훨씬 우월할 것”이라며 하이브리드 기술력에 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용인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